

월요광장

왜 연말이면 우울할까



문요한 정신과 전문의

연말이 되면 평소보다 더 우울해지는 이들이 있다. 지금 당신은 어떤가? 다들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연말에 우울한 이들은 생각보다 많다.

2015년 12월에 직장인 515명을 대상으로 한 취업 포털 사이트 설문 조사 결과를 보자. 응답자 84.8%가 '연말이 되면 마음의 후유증을 겪은 적이 있다'고 답했다.

그 원인으로는 '한 해 동안 성취한 것이 없는 것에 대한 허무감'이 33%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그리고 '화려하고 들뜬 분위기 속의 상대적 소외감'이 22.3%로 그 뒤를 이었다.

즉, 연말에 우울한 이들은 결국 자신에게 기대가 높은 사람이거나 다른 사람들과 비교를 많이 하는 이들이란 셈이다. 무언가 더 해야 하는데 하지 못했고, 남보다

더 좋아야 하는데 그렇지 못해 우울한 것이다.

게다가 '연말'(年末)이라는 말 자체가 기분을 더욱 안 좋게 한다. 연말이란 말 그대로 한 해의 '끝'을 말한다. 이 '끝'이라는 말은 이제 어떻게 할 수 없는 모든 가능성이 닫힌 느낌을 준다. 그런데 이 '끝'을 느끼는 순간 비로소 우리는 뒤를 돌아본다. 시간의 시야가 확장되는 것이다. '시간 시야'(time horizon)란 시간을 바라보는 범위를 말한다.

평소에 우리의 시간 시야는 좁다. 오늘이나 내일 혹은 김면 일주일 정도이다. 매일 눈앞에 놓인 일들을 처리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기에 급급하다. 그렇게 지나다 보면 1년이라는 시간이 훌쩍 지나가 버린다. 그리고 연말이 돼서야 지난 1년을 돌아본다. 자신이 올 한 해를 어떻게 살았는지, 삶의 어디쯤에 와 있는지를 돌아보게 된다.

이는 흔히 허무와 후회를 불러일으킨다. 뭔가 새로운 변화도 없고, 성취한 것도 보잘 것 없고, 좋은 일도 별로 없었던 것 같은 느낌이 든다. 결국 '한 일 없이 또 나이만 먹는구나!'라는 자괴감이 빠지기 쉽다. 이러한 허무감이나 자괴감은 말갈지 않은 '마음 손님'이다. 우리를 불편하

게 한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 이 마음 손님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어 왔는지 듣지 않고 빨리 내쫓으려고 한다. 그 흔한 방법은 분주함이다. 중요한 모임이든 아니든 여러 모임을 쫓아다니고, 과음과 과식 속에 지나다 보면 그 불편한 마음을 덜 의식한다. 그러다가 새해를 맞이한다.

'새해!' 이는 말만 들어도 근사하다. 연말의 착착한 기분을 권어 낸다. 뭔가 시간이 많은 느낌을 주고, 왠지 새로운 해가 될 것 같고, 뭔가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은 기대가 생긴다. 그러나 그 역시 착각이다. '새해'란 삶의 유행성에 대한 자각을 두려워하는 인간이 이를 피하고자 만들어 낸 발명품일 뿐이다.

시간은 절절로 새로워지지 않는다. 그냥 하루가 지난 것일 뿐이다. 해가 바뀌면 다시 시간 시야는 좁아진다. 우리는 또 그 날 눈앞에 있는 일을 하며 하루하루를 보낸다. 그러다 또 1년의 끝에 다다른다. 그리고 우리는 또 허무함이나 자괴감이 빠진다. 놀람도 반복되는 풍경이다.

새로운 마음가짐이 없다면 삶은 새로워지지 않는다. 그런 의미에서 연말의 우울감은 새로운 삶을 위한 발판이다. 연말에 느끼는 허무함과 우울감이 심각한 게 아

니라면 우리는 그 안으로 더 들어갈 필요가 있다. 왜 허무하고 우울한지 보다 깊은 대화를 나누어 한다. 어떤 점이 후회되는지, 무엇을 했어야 하거나 무엇을 하지 말았어야 했는지, 자신의 기대나 목표가 현실적이거나 적절했는지, 자신에게 무엇이 중요한 것인지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 그리고 삶의 유행성을 자각해야 한다.

예상과 달리 나이 들수록 연령대 별 '행복 지수'는 전형적인 U자 모양이다. 통상 30~50대가 가장 불행하고, 어릴 때와 노년기 가장 행복하다. 아이들이 그렇다 치지만 왜 노인들이 더 행복할까? 아이라니 하기도 '끝'을 잘 느끼기 때문이다. 끝을 느끼기에 우울해지지만 그 우울할 때문에 다시 행복의 문이 열린다.

살남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는 자각이 끝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마음 때문에 노인들은 남은 시간을 유일한 것으로 여기고 소중하게 대한다. 젊을 때와 달리 자신에게 맞지 않거나 할 수 없는 것에 연연해하지 않고 남을 덜 의식한다. 마냥 행복을 미루기보다는 좋은 경험을 늘리고, 좋은 사람들과 시간을 보낸다. 오늘을 사는 것이다. 행복은 '끝'을 잘 느끼는 사람만이 느낄 수 있는 인생의 선물이다.

社說

광주 3대 벨리 성공 위해 모두 한데 뭉쳤다

광주의 미래 성장 동력이 될 친환경 자동차와 에너지 신산업, 문화콘텐츠 분야의 기업 유치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사민정(勞使民政)이 한마음으로 뭉쳤다. 지난주 출범한 '광주형 일자리(路) 3대 벨리 기업 유치 범시민추진위원회'가 그 결실이다.

추진위는 지역의 정계와 경제계, 학계, 노동계, 언론계, 시민사회단체 등 각계각층의 주요 인사 90여 명으로 구성됐다. 위원장은 윤장현 광주 시장과 김상열 광주상의 회장이 공동으로 맡았다. 기업 유치를 위한 지역 역량 결집과 분위기 조성, 대내외 정책 건의 등이 추진위의 주요 역할이다. 향후 집행위원회와 분과별 위원회를 두고 적극적인 유치 활동에 나설 예정이다.

윤 시장은 출범식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앞둔 중요한 시점에서 지역 노사민정이 연대의 첫걸음을 내디딘 것은 세상을 바꾸는 혁신의 시작이며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 회장은 "광주의 미래 먹거리 산업인 3대 벨리의 기업 유치가 성공적으로 추진되도록 앞장서겠다"고 다짐했다.

문재인 정부는 이미 100대 국정 과제에 광주형 일자리 선도 모델 창출과 에너지 벨리의 국가 에너지 신산업 거점화, 한전공대 설립, 미래형 자동차 생산기지 조성, 국립 아시아문화전당 활성화 등 광주의 전략 산업을 대거 포함시켰다. 여기에 관련 기업 유치를 위한 시민추진위까지 출범함에 따라 3대 벨리 조성은 한층 탄력을 받게 됐다.

기업 유치와 일자리 창출은 지자체의 의지만으로는 어렵다. 지역 내 경제 주체가 일심동체로 힘을 합쳐야 성과를 낼 수 있다. 특히 노동계 및 시민사회의 협조는 필수적이다. 산업 기반이 취약한 광주가 새로운 도약을 위한 호기를 잡은 만큼 지역의 역량을 총결집해 3대 벨리를 완성함으로써 질 높은 일자리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잇단 참사...달라진 것 없는 우리의 안전의식

또다시 안전불감증이 빛은 대형 참사가 발생했다는 사실이 우리 모두를 부끄럽게 하고 있다. 29명의 목숨을 앗아간 지난 21일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는 대형 사고 때마다 문제로 지적됐던 상황들이 되풀이됐다는 점에서 달라진 게 없는 우리의 안전 의식 수준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제천 화재는 불에 취약한 건축-건물 구조, 건물 내 소방시설 및 시스템 미작동, 일상의 시민 안전의식 부재 등이 한 데 어우러져 빚어진 인재였다. 문제는 이 순간에도 불법 주차와 막힌 소방도로 등 동일한 여건의 다중이용시설이 나 건물들이 전국에 널려 있어 언제든 재천 화재와 같은 참사가 발생할 수 있는 점이다.

1층 주차장에서 시작된 불은 순식간에 건물 전체로 번졌는데, 이는 1층에 이동만을 세우 주차장으로 쓰는 '필로티' 구조가 발화와 동시에 공기를 불어넣는 스티로폼을 재료로 한 건물 외벽 마

감재인 드라이비트 외장재는 유독가스를 내뿜는 불쏘시개 역할을 했다. 이와 함께 스프링클러가 작동하지 않아 불이 빨리 번졌고, 비상구가 제대로 확보되지 않은 탓에 2층 목욕탕의 여성들이 대피를 하지 못해 인명 피해를 키웠다.

화재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소방차의 신속한 출동과 접근이 중요하다. 평소 운전자들이 아무 생각 없이 불법 주차한 차량 때문에 소방차가 진입하려면 8m 폭의 도로가 필요하기 때문에 무단 주차된 차량을 치우느라 시간을 허비했다는 점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아울러 화재에 취약한 구조로 입증된 필로티 구조와 드라이비트 외장재 사용을 규제하고 기존 시설에 대해서도 보완할 필요가 있다. 또한 스프링클러나 비상구 확보 등 소방 안전시설에 대한 점검을 상시화하고,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할 것이다.

無等鼓

문인을 꿈꾸는 예비 작가들에게 12월은 기쁜 달이다. 신춘문에 작품 공모와 심사 그리고 당선작 결정이 12월 한 달 안에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작가 지망생들은 심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노심초사하며 하루하루를 지낸다. 결과를 기다리는 시간은 그 어떤 시간보다 초조하고 어찌 보면 잔인하기까지 하다.

국내 신춘문에는 일제강점기인 1925년 동아일보에서 최초로 시작됐다. 당시 '일격정'의 작가 홍명희 편집국장 주도로 처음 생겼던 것이다. 이제 거의 100년 가까이 시행되고 있는 신춘문에는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우리만의 문학을 엮어 만든 '문학의 집'이 있다. 문학의 집은 문학을 업으로 삼으려 하는 문청(文淸, 문학청년)들에게 일생일대의 관문(關門)이기도 하다. 내로라하는 기라성 같은 작가들이 대부분 신춘문에 출신으로, 당선이 된다는 것은 곧 명예로운 '문학적 증명서'를 받게 된다는 인식이 담겨 있다.

올해 광주일보 신춘문에 작품 공모에도 시, 소설, 동화 세 부문에서 모두 2068편이 투고됐다. 예년 수준을 훨씬 웃도는 응모 현황은 여전히 수많은 문청들이 문학을 열망하고 있다는 사실

을 보여 준다. 당선작은 새해 첫날 지면을 통해 발표되지만, 결과는 이미 개별 통지가 된 상태다. 그럼에도 "결과 언제 발표되느냐?"는 문의가 하루에도 수차례나 오는 걸 보면 이들의 간절함이 어찌하지 않을 수 있다. 감내해야 할 앞으로의 1년은 또 얼마나 아득하고 통스라울지도 짐작된다.

지금도 고전이 되어 버린 박범신의 '문학, 목매달아 죽어도 좋을 나무'라는 당선 소감이 오늘도 시대에도 유효

한지는 알 수 없다. 은희정 작가는 '더 이상 없으면 안 될 것 같은

절박함이 목까지 차 올랐던 무렵' 당선이었지만, 안도현 시인은 '뭉스럼 열병으로 겨울 들판을 헤매게 만드는' 게 바로 신춘문이라고 했다.

아마도 글쓰기는 수많은 인간의 욕망 가운데 하나인 것만은 분명해 보인다. 가장 기본적으로면서도 세련된 방식으로서 말이다. 문학은 모든 예술 장르의 토대이기도 하다.

신춘문에 시즌이 끝났다. 누군가는 기쁨을 누리겠지만, 대부분은 묵묵히 쓰라림을 견딜 것이다. 올 겨울은 유난히 추울 거라는데...

/박성천 문화부 부장 skypark@

법조칼럼

형사 양형에 관한 변명(辨明)



한원교 광주지방법원 부장판사

사회에서 격리시킬 필요가 있다.'라고 적혀 있다.

같은 범조인의 시각에서 위 양형 이유를 읽어 보면, 당시 재판부는 조두순을 매우 엄히 처벌한다는 생각에서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

형사 재판에 대한 여론의 비판을 보면서, 형사 재판장의 한 명으로서 어쩌다가 법원이 국민들로부터 질타를 받는 재판을 하게 되었는지 곰곰이 생각하게 되었다.

먼저, 법관들에게는 타인의 생명을 고의로 앗아가는 '살인죄'에 대해 가장 중한 형을 선고해야 한다는 생각이 은연중에 자리 잡고 있었던 것 같다.

형법에서는 살인죄에 대한 법정형을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정하고 있는데, 구(舊) 형법에서는 유기징역형을 '1개월 이상 15년 이하'로 정하고 있었다(유기 징역형에 대하여 최대 30년의 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형법이 개정된 시점은 불과 7년 전인 2010년이다).

이에 따라 살인죄도 재판부가 사형이 나 무기 징역형을 선택하지 않는 한 최대 15년의 형을 선고할 수 있었을 뿐이다.

그 결과 범행 수법이 극히 잔혹한 경우를 제외하면 15년의 형 또는 그보다 더 낮

은 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살인범에 대해 왕왕 선고된 15년의 형이 일응의 기준이 돼 흉악한 강간범이나 강도범이라고 하더라도 15년이 넘는 형이 선고되는 경우는 거의 없었던 것 같다.

조금 더 생각을 해 보면, 관련 법령이 평균 수명이 급격히 늘어난 시대 상황을 제때 반영하지 못한 데에 근본적인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닌가 싶다.

1953년에 제정된 형법이 몇 차례 개정되기는 하였지만, 2010년 개정될 때까지 그 내용에 있어서는 큰 변화가 없었다.

그런데 국가기록원에서 발표한 통계자료를 보면, 1960년 52.4세에 불과하였던 우리나라 남자의 평균수명이 1980년에 62.3세, 2000년에 72.3세로 급격히 늘어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평균 수명의 변화를 보면, 1953년 형법을 제정한 입법자가 유기 징역형의 상한을 15년으로 정한 이유를 대강이나마 짐작할 수 있다. 1950년 무렵 평균수명이 대략 50세 정도이고, 30세의 범죄자에 대해 15년의 형이 선고되었다고 가정하면 대략 45세 정도에 출소를 하게 된다. 당시 입법자는 극악무도한 범죄자라고 하더라도 약 45세 이후에는 힘이 다 빠진

노인이 돼 나쁜 짓을 하고 돌아다닐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한 것은 아닐까?

이광수가 쓴 소설을 보면 40대 중반의 등장인물을 지칭하면서 '중늬은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으니 이러한 추측이 터무니없다고만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조두순이 2008년 12월 어린아이를 대상으로 강간 범행을 저질렀을 무렵 이미 50대 중반으로 완감을 앞둔 나이였으니, 시대가 참 많이 바뀌기도 하였다.

하기야 최근 국정농단 사건에서 60대 초반의 여자 피고인이 25년의 형을 구형 받고 '육사하라는 것이냐'고 말하면서 반발했다고 하니, 요즘 나이 80세나 90세가 예전의 50세와 비슷하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도 같다.

수년 전부터 법원에서는 국민의 법 감정에 부합하는 새로운 양형 기준을 설정하는 등 많은 노력을 해왔고, 이에 따라 강력 범죄에 대하여는 중형이 선고되고 있다.

중형의 범일 양형이 급격히 바뀐 우리 사회의 실정에 따라가지 못한 점이 있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지만, 법원의 판단에 대하여 조금 더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봐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고

저출산 대책, 청년에 투자해야



이정아 전남저출산극복 사회연대회의 위원 전남복지재단 교육사업팀장

일본, 이탈리아, 독일을 주요 사례로 소개한다. 일본은 부동산 가격과 경제 성장을 하락의 가장 큰 원인을 청년 인구 감소에서 찾는다. 청년 인구가 줄면 경제가 줄어 오하러 돌아갈 것이라는 전망이 무색하게 되니까까지 시간은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다. 일본은 경기 불황을 타개할 해법으로 SOC에 투자했으나 현재 일본의 청년 인구 3명 중 1명이 비정규직이고 니트족이라고 불리는 무직자는 날로 늘어만 간다. 이미 일본은 정치적 이유로 인구 정책은 실패하였고, 청년들은 늘어나는 부양 의무로 암울한 시기를 보내고 있다. 이탈리아도 예외는 아니다. 청년 인구의 40퍼센트가 직업이 없고 70퍼센트가 캥거루족이다.

반면, 독일은 일찌감치 청년에 투자한 결과, 견고한 경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경기 불황이 닥치자 정리 해고를 하는 대신 오히려 청년 일자리를 확대하였다. 기성세대와 청년세대가 서로 공존하기 위해 지혜를 모았던 것이다. 교육육은 대학교까지 무상으로 제공하고 주거비와 생활비도 지원한다. 뿐만 아니라 졸업 후 취직을 못 하면 처음부터 실업 수당을 지급한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어떠한가. 각종 지표들에서 보이는 대한민국 청년의 미래는 밝지만은 않다. 청년 실업률은 해마다 증가세다. OECD 국가 중 청년실업이 가장 악화된 나라로 꼽힌다. 니트족 비중 또한 터키, 멕시코 다음으로 높아 제각각

는 청년 실업률은 더욱 높게 나타난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캠퍼스 낭만은 커녕 결혼은 꿈조차 꿀 수가 없다. 청년세대들은 정부가 내놓은 저출산 대책에도 공감하지 못한다. 결혼할 사람이 없어서 아이를 안 낳는 것이 아니고, 임신·출산 비용이 없어서 출산을 꺼리는 것도 아니다. 저리의 전세 자금을 대출해 준다 해도 전세 풀기 현상으로 집을 구할 수가 없다. 실령 전셋집을 구했다 해도 대출금 값은 출산은 뒷전으로 밀려날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도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게 하는 가장 큰 요인은 고용 불안이다.

그들은 "소득이 언제 끊길지 모르는 계약직이어서, 육아휴직 후 복귀하면 승진에 불이익이 있을 것이라는 염려 때문에 결혼과 출산을 기피할 수밖에 없다"고 토로한다.

결국 당사자들의 관점이 배제된 정책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 서울시의 청년수당과 성남시의 청년 배당은 철저히 청년의 관점에서 운영된 정책 사례라 할 수 있다. 박원순 시장은 3년이라는 기간 동안 청년들과 소통하고 토론하며 청년수당 정책을 만들었다. 처음엔 일자리가 초점을 맞춰 청년 고용 기업에 예산을 지원 하는 방식이었으나 결과적으로 기업 보조금으로 전락했다. 그래서 나온 정책이 청년에게 직접 투자하는 방식인 청년수당이다. 성남시의 청년 배당도 마찬가지다. 기본소득제를 근간으로 하고 있는 청

년 배당은 이재명 시장의 확고한 신념으로 운영되었다. 낭비와 부정부패를 지양하고 예산 구조 조정을 통해 복지 시스템을 정비했다. 청년들의 눈높이에서 서로 공감하며 만들어 낸 정책은 결과는 청년들의 긍정적 변화를 통해 증명되고 있다.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이렇듯 아이를 낳게 하려면 아이 낳을 당사자의 입장을 먼저 살펴야 한다. 그들이 가장 힘들어 하는 부분이 무엇인지,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분석하고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앞서 성남시의 사례를 통해 확인하였듯이 예산은 어디에 가치를 두고 사용하느냐에 따라 대상자의 삶의 질이 달라진다. 경제 수준이 우리보다 훨씬 뒤떨어진 나미비아에서도 기본 소득 실험을 통해 청년 세대에 작은 투자가 얼마나 놀라운 변화를 가져왔는지 증명하지 않았던가. 더 이상 정치적 이유로, 혹은 이념 논쟁으로 청년을 방치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경기 불황에 오히려 청년에 투자하고 세대 갈등 해결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던 독일의 사례를 '정면교사'(正面教師)로 삼아 미래 세대인 청년에 투자하여야 한다. 단, 투자는 그들이 현실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수준이어야 하며, 사회적 논의가 선행되어야한다. 그랬을 때만이 미래의 최대 위협인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金日煥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경 제 부 220-0663 (FAX 222-4938)	경영지원국 (FAX 222-8005)	문화사업국 220-0541 (FAX 222-0195)
편집 부 220-0649	문 화 부 220-0661 (FAX 227-9500)	기획관리국 227-9600	업 무 국 220-0551 (FAX 227-0195)
정 치 부 220-0632	문화미디어부 220-0664	사 회 부 220-0642	체 육 부 220-0697 (FAX 02-773-9331)
사 회 부 220-0642	체 육 부 220-0697	사 회 부 220-0652	사 진 부 220-0693 (FAX 02-773-9335)
*우투로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